

# 濟州島 方言의 母音體系

玄 平 孝

## 1. 序 言

1. 1, 하나의 音韻은 그 音韻體系 안에서 다른 音韻들과 區別되고 對立되는 데서 存在한다. 이 對立을 이루지 못한 音韻은 對立의 작을 求하던지, 아니면 消滅하여 버리던지 한다. 音韻이 이와 같이 對立의 작을 求하고 또는 消滅하여 버리고 하는 데서 그 音韻體系는 變化를 입게 되는 것이다.

R. Jakobson도 體系를 考慮하지 않은 어떤 特殊한 形態의 歷史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며 言語體系의 要素는 서로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기 때문에 그 體系의 變化를 考察함으로써만 各 要素의 個別的인 變化도 解明되는 것이라고 強調한 바 있다. 1)

1. 2, 오늘날 濟州島 方言은 크게 變化를 입고 있음이 어김없는 事實이다. 八·一五後 物밑 듯이 밀려 들어오는 改新派의 潮流에 밀리고 밀려 이 地域 方言의 言語形式들은 마구 破粹 當하고 埋沒 當하여 가고 있다. 그것은 變化하기 쉬운 音韻이나 語彙들만이 아니고 語法도 큰 變化를 입고 있다.

하나 여기서는 이런 方言의 言語體系 全般에 걸쳐 그들을 일일이 들어서 考察하여 나갈 余裕가 없다. 다만 앞의 1. 1, 에서 말한 音韻變化의 理法을 머금고 이 地域 方言의 音韻 中에서도 特히 單母音에 限하여 그들이 어떻게 體系를 構成하며 또 그 體系가 世代層에 따라서 어떤 相違가 없는가를 考察하고 나아가 그런 相違 體系를 가지게 된 變遷過程과 그 原因들에 對하여 極히 簡略히 言及해 보려 한다.

## 2. 母音體系

2. 1.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서는 單母音 音素로서 /i, e, ε, ʊ, ə, a, u, o, ɒ/ 9母音이 널리 使用되어 지고 있다.<sup>3)</sup>

2. 2. 前舌母音으로서 /i/와 /e/가 間隙의 差로 段階對立을 이루어 別個音素로 分化되어 있음은 다른 地域의 方言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ε/ 母音의 存立에 對해서는 매우 論難되는 바가 많다. 于先 native speaker 들의 音韻意識은 어떻게 間에 Informant의 發音現象만을 觀察하는 때에는 /ε/는 /e/ 母音과 혀의 高低의 段階的 差異에 있어서 分別하기 어렵다는 것이 外來 觀察者들의 見解이다.

다음에 표준어의 /ε/ 音語가 이 方言에서는 어떻게 實現되어 지는가를 對比시켜 보기로 한다. 표준어에서 /ε/로 되어 있는 어떤 말들은 이 方言의 utterance에서 [e]와 [ε] 두 音으로 實現된다.

[kore]~[korε] (고래),

[tochebi]~[tochebi] (도깨비),

[totte]~[totte] (뚝대),

[puzitheʔi]~[puzitheʔi] (부지깁이) etc

다음 표준어에서 /ε/로 되어 있는 어떤 말들은 이 方言의 utterance에서 /ε/로만 實現되어 진다.

[tephe] (태패, 鎗), [kkedɔtta] (깨달다), [te:hɔda] (태하다, 對一),

[the] (태, 垢), [pe] (배, 船), [pe] (배, 腹), [he] (해, 太陽),

[ce] (재, 灰) etc.

이와 같이 許多한 표준어의 /ε/ 音語가 方言 utterance에서 /e/ 音으로만 實現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utterance로 하여 濟州島의 方言에는 /ε/ 母音은 獨立된 音素로서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外來의 觀察者들은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표준어의 /ε/ 音語들은 方言의 utterance에서도 確

實히 [ɛ] 음으로 實現되어 진다

[kekɔt] (갯가, 浦邊), [keda] (개다, 睛), [ne:naʋ] (내내),  
[te:josɔt] (대여섯), [techo] (대추), [seropta] (새롭다), etc

이들은 第一音節에서 [ɛ] 음으로 實現되어 지는 말들이지만 第二音節에서도 [ɛ] 음으로 實現되어 지는 말들이 있다.

[khotte] (כות대), [mulme] (물매, 一鞭) [chetsekki] (첫새끼),  
[phogeda] (포개다), [hwaneda] (화내다), etc

이들 말에서 第二音節의 [ɛ] 음이 [e] 음으로 實現되어 지는 일은 좀처럼 없다.

다음과 같은 말들은 言衆들의 音韻意識上에서는 勿論 發音現象에서도 [e]로 나타나는 일은 없고 언제나 [ɛ]로만 實現되어 진다.

[kɛ] (개, 犬), [ne] (내, 我), [ne] (내, 川), [te] (대, 竹),  
[mɛ] (매, 鷹), [me] (매, 鞭), [se] (새, 鳥), [he] (해, 多)

이들 말은 分明하게 [ɛ] 음으로 實現되어 지고 있다.

위에서 표준어의 /ɛ/ 音語가 方言의 어떤 말에서는 [e] 음으로만, 또 어떤 말에서는 [e]와 [ɛ] 두음으로, 또 어떤 말에 있어서는 [ɛ] 음으로만 實現되어짐을 보아 왔다.

native speaker 들은 이 두음 [e]와 [ɛ]를 分明하게 別個 音素로 意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여 발음한다.

그런데 外來의 觀察者 들에게는 이 두음의 發音現象을 聽取할 때 그 두음 사이에 何종의 差異點 即 혀의 高低의 段階의 差異를 發見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하나의 音素가 다른 音素들로 부터 發音意圖上 區別되면서 발음하여 진다는 것, 이것은 그 問題의 音素가 音韻論적으로 다른 音素들과 對立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겠다. 音韻이란 필경 이 對立의 兩極에 不過한 것이며 眞實로 存在하는 것은 音韻論的 對立문인 것이다. 4)

다음 이 地域 方言에서의 [ɛ] 음과 [e] 음의 對立의 雙(minimal pair)을

들어 보기로 한다.

/he/ (太陽) : /he/(多),

/te/ (代) : /te/(竹),

/tte/ (垢) : /tte/(時),

/pe/ (船) : /pe/(繩),

/se/ (舌) : /se/(鳥),

/seda/ (漏) : /seda/(贈),

/sebe/ (歲拜) : /sebe/(晨)

이와 같이 많은 minimal pairs를 얻을 수 있다. 이들 말에서 /e/음과 /ε/음은 각각 機能的 單位로 最小의 對立音이 되어지고 있고, 이 두 對立音에 依하여 語義가 分化되어 지고 있다. 이리하여 이 두 [ε]와 [e]음은 濟州島 方言 母音體系에서 各各 獨立된 音素로 存在한다고 斷定할 수 있다.<sup>5)</sup>

2. 3, 다음 中舌母音으로서 /ɯ/와 /ə/와 /a/음들이 各各 間隙의 差別的 單位가 되어지고 있고 따라서 別個 音素로 分化되어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2. 4, 다음 後舌母音으로서 /u/와 /o/음이 各各 別個 音素로 存在함은 다른 地域의 方言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濟州島 方言의 母音體系에는 또 하나의 「後舌半開母音」으로서 /v/(으)가 있다. 陸地部 語音에서는 16世紀 後半으로 17世紀에 이르면서 이미 消滅하여 버린 /v/음이 오직 濟州島 方言에만 殘存하여 있다는 事實! 이것은 濟州島 方言이 國語學上 높이 評價되어야 할 點이다.

/kɯswɪl/ (가을), /kɯnuɪlda/ (가늘다), /kɯdɛ/ (갈매), /nɔɪ/ (날, 甓)  
/nɔt/ (額) /kɯswum/ (감, 材料), /nɔɪlda/ (날다, 飛), /tɔɪ/ (달, 月),  
/ttɔɪ/ (딸, 女息), /tɔtta/ (달다, 走), /tɔɪlda/ (달다, 甘), /mɔwɪl/  
(마울), /mɔdi/ (마디, 節), /pɔrɯm/ (바람, 風), /szmi/ (소매, 袖),

/sɔmu/ (事務), /sɔbɔm/ (師範), /cɔgi/(자기, 自己), /hɔkkjo/  
 (학교), /chɔre/(차레), /thɔda/(타다, 乘) /phɔda/(파다, 捫),  
 /chɔda/ (차다, )

이들 외에도 許多한 말들이 아직도 濟州島 方言에서는 /v/음으로 實現되  
 어지고 있다. 여기에 든 말들은 第一音節에서 /v/음이 實現되어 지는 말  
 들이지만 第二音節에서도 /v/음이 마찬가지로 實現되어 진다.

/nekɔt/ (넷가, 川邊),  
 /tadɔtta/ (다다르다),  
 /tɔldɔri/ (다달이),  
 /ttɔttɔthɔda/ (따뜻하다),  
 /cɔsɔk/ (자식, 子息),  
 /thɔnmɔsum/ (판마음),  
 /sɔsɔroi/ (사사로이),  
 /seʔsɔ/ (생사, 生死)  
 /jɔdɔp/(여덟), /ceʔɔ/(제자, 弟子), etc.

여기 든 것은 그 一部에 不過한 것으로 이 외에도 第二音節에서 발음해  
 지는 말들이 있다.

위에 든 例들에서 보더라도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는 /v/음이 相當한 勢  
 력으로 使用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2. 5. 위에서 濟州島 方言의 單母音 音素 아홉을 定立시켰다. 그런데 이  
 들 各 音素는 그 構造 體系上에서 一定한 均衡狀態를 取해져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音素 /i/와 /e/사이의 安全間隔 (marge  
 de sécurité)은 넓다. 그 反面 /e/와 /ɛ/ 사이의 安全間隔 或은 變異音域  
 (allophonic range)은 매우 좁다. 事實 이 /ɛ/음은 濟州島 方言에서는  
 /e/와 /ɛ/의 間音으로 발음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 발음현상을  
 兪뜻 聽取하는 데에서는 /e/와 /ɛ/를 區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e/와 /ɛ/ 두 母音의 安全間隔이 매우 좁기 때문에 年少層에 있어서는 이 두 음을 잘 區別하여 習得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濟州地域의 年少層들의 utterance에 있어서 /te/(代)와 /tɛ/(竹), /nɛ/(煙)와 /nɛ/(川), /pe/(船)와 /pɛ/(繩)들 말에서 實現되는 音韻의 差異의 有無를 좀처럼 識別하여 聽取할 수가 없고 또 그들 自身도 이 두 /e/와 /ɛ/를 別個音韻으로 識別하지 못하는 傾向이 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濟州地域의 年少層의 言語에서 前舌母音 /e/와 /ɛ/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融合的 變化를 하여서 /E/로 確定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結果 오늘날 濟州島 方言의 前舌母音은 그 體系가 二重으로 되어가고 있다 하게 된다. 이 /E/음은 濟州島 方言에만 局限되어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他地域 方言에도 있는 음이지만<sup>7)</sup> 아뭏든 오늘날 濟州島地域 方言의 前舌母音은 壯年層(C) 以上の 言語에서는 3母音 體系이고 年少層(S)의 言語에서는 2母音 體系라 하게 된다. 이 두 體系를 對比시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C.S // i \sim \frac{c/e \sim \epsilon/}{S/E/} //$$

2. 6, 年少層의 言語에 있어서 이와 같은 前舌母音에서의 音韻의 融合은 「構造上的 구멍」(hole in the pattern)<sup>8)</sup> 을 招來하고 體系上 不均衡 狀態를 免치 못하게 된다. 即 前舌母音이 2母音 體系인데 對하여 後舌母音은 3母音 體系로, 「統合되지 않는 音素」 하나가 後舌母音 體系에 더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構造上的 구멍」이 되어 있는 곳에 다른 音素를 끌어 당겨서 메우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統合되지 않는 音素」를 消滅시킴으로서 體系의 均衡을 取하던지 하게 된다. 濟州島 地域의 年少層의 言語에서는 後舌半開母音 /ɔ/를 /o/음 或은 /a/음에 融合, 消滅시켜 나가고 있다. 事實 年少層의 言語에서는 오늘날 /tok/(鷄)을 /tok/으로 /mol/(馬)를 /mol/로, /phɔt/(小豆)을 /phɔt/으로 발음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표준어 교육의 영향은 이 方言 /ɔ/음을 /o/음으로만

變化시켜 나갈 것 같지는 않다. 「사이」(間) 같은 말을 壯年層에서는 오늘날 [spi], [sai] 두 語形으로 발음을 하지만 年少層에서는 거의 [sai]로 固定되는 것 같고 그의 許多한 /p/音語가 年少層의 言語에서는 /a/音語로 變해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濟州島 地域의 年少層의 言語에서는 /p/음은 급격히 消滅되어 버리는 段階에 있다.

이렇게 되면 濟州島 地域方言의 後舌母音체계도 二重으로 되어가고 있다 할 것이다. 卽 壯年層(C) 以上の 言語에서는 3母音體系가, 年少層(S)의 言語에서는 2母音體系로 變하게 되는 것이라 하게 된다

前舌母音에서의 方式과 마찬가지로 이 두 母音體系를 對比시켜 보면

$$C.S \parallel u \sim \frac{c/o \sim p/}{s/o} \parallel$$

와 같이 된다 할 것이다.

2. 7, 위에서 말한 바 후설모음계열에서의 /o/음이 /o/음 또는 /a/음에 融合, 消滅되어 나가는 것은 「構造上的 구멍」을 없애고 체계상 均衡을 取하려고 하는데서 일어나는 現象이지만 그에 앞서 濟州島方言의 單母音體系는 方言의 全母音組織이 9모음체제로서 매우 均衡이 잡힌 安定된 체계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어찌하여 전설모음계열에서 체계의 變遷을 招來하게 되었을까? 다시 말하여 /e/와 /ɛ/ 두 모음이 한 음운으로 統合되는 原因이 어디 있을까가 의문이다.

A. martinet에 依하면 通時音韻論의 特質을 機能, 構造, 惰性和 不均衡의 세 가지로 要約하고 있다. 여기의 機能이란 示差的 機能을 意味하고 構造란 음운을 形成하는 示差的 特徵이 음운간의 相關과 相關束을 形成하고 음운을 統合하는 作用을 하는 것을 말한다.

martinet는 여기서 機能상의 必要性和 構造상의 壓力이라는 두가지 內的 要因 以外에 발음器官의 惰性和 不均衡이라는 外的 要因을 들고 音韻變化는 이 兩者의 對立, 다시 말하여 人間의 表現慾의 必要性和 心的, 生理的 努力을 最大限으로 節約하려는 人間性向과의 二律背反의 인 制約 밑에

서 이루어진다고 한다<sup>9)</sup>

이 「發音器官의 惰性」과 「努力을 最大限으로 節約하려는 人間性向」! 이 두가지가 濟州島方言의 전설저모음 /ε/를 그 發音傾向에서 高音化하고 굽기야는 /E/음으로 確定시켜 나가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前舌에서 低母音을 발음함에 있어서는 發音器官을 緊張시키고 低舌化에 따르는 努力을 더 드려야 함은 勿論이다.

이 發音器官을 緊張시키고 努力을 더 드리고 하는 것은 最少努力의 原動力과 內的機構의 原理에 違背되는 現象으로서 言語의 經濟를 苛하는 人間性向 앞에는 特히 음운체계를 새로이 習得하는 年少層에게는 그대로 오래 지탱되어 行하여질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濟州島方言에서 /ε/음은 그 頻出度數나 機能負擔量이 單母音중 가장 낮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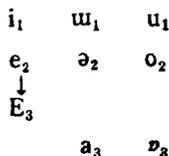
이와 같이 /ε/를 발음하기 爲해서는 發音器官의 緊張, 努力의 增大를 要하게 되고, 한편 또 이 /ε/음은 頻出度數나 機能負擔量이 낮다는 이러한 要件들이 9모음 중에서 가장 먼저 變化를 입게된 要因이 아닌가 생각된다.

2. 8. 위와 같은 理法으로 하여 濟州島 地域의 壯年層(C)의 모음체계는 다음과 같이 變遷過程(K)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할 것이다.

C모음체계	K모음체계
i <sub>1</sub> ʉ <sub>1</sub> u <sub>1</sub>	i <sub>1</sub> ʉ <sub>1</sub> u <sub>1</sub>
e <sub>2</sub> ə <sub>2</sub> o <sub>2</sub>	e <sub>2</sub> ə <sub>2</sub> o <sub>2</sub>
ε <sub>3</sub> a <sub>3</sub> ʌ <sub>3</sub>	ε <sub>3</sub> a <sub>3</sub> ʌ <sub>3</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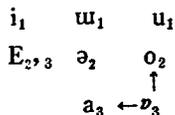
이 變遷過程의 모음체계 (K모음체계)는 /ε/음이 高舌化(↑)하여 나가는 過渡의 現象의 것으로 그것은 이윽고 다음과 같이 年少層(S)의 모음체계로 確定되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S모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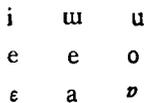


이 체계에서 전설모음의 /e/와 /E/는 그 사이의 音聲의 間隔이 너무도 좁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으로 融合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 있는 것이다. 또 한편 후설저모음 /ɔ/는 그 對立의 작을 잃어 高舌化(/o/음화) 또는 中舌化(/a/음화)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現狀에 處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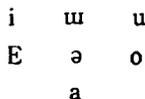
S모음체계



2. 9, 以上과 같이 하여 오늘날 濟州島方言에서는 그 單母音組織이 壯年層 以上の 言語에서는 9모음체계로 되고 年少層의 言語에서는 7모음체계로 되어가고 있어서 各各 그 構造를 달리하는 二重의 체계가 共時的으로 行해져가고 있는 것이라겠다. 이 濟州島方言의 單母音組織은 壯年層 以上の 言語에서는



와 같이 「三序三系四角組織」이고,<sup>11)</sup> 年少層의 言語에서는



와 같이 「三序三系三角組織」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構造, 壯年層 以上の 9모음체계와 年少層의 7모음체계를 여기서 統合하여 對比

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C \cdot S \parallel i \sim \frac{c/e \sim \epsilon/}{S/E/} \sim u \sim a \sim u \sim \frac{c/o \sim \upsilon/}{s/o/} \parallel$$

이렇게 對比시켜 볼 때 S체계의 /E/음은 그內容에 있어서 C체계의 /e/와 /ε/를 包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또 그 實現되어 지는 變異音域이나 安全間隔에 있어서도 C체계의 /e/나 /ε/와는 實로 激甚한 差異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 음의 變異音域은 C체계의 /e/-/ε/ 음역에 걸쳐져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S체계의 /o/도 C체계의 /o/음과 音素로서의 辨別의 實質이 같다 하더라도 그 內容을 전혀 달리하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다. 于先 그 實現되어 지는 變異音域이나 安全間隔에 있어서 激甚한 差異가 있고 機能負擔量에 있어서도 差異가 있는 것이다.

### 3. 結 論

以上 濟州島 方言의 모음체계에 對하여 極히 簡略하게 記述, 考察하여 왔다. 오늘날 濟州島方言의 모음체계를 壯年層 以上과 年少層, 두 世代差에 따라 나누었고, 各個 체계에 있어서 모음들의 音韻的 資質, 變異音域 安全間隔, 그리고 機能負擔量들이 相違함을 보아왔다. 또 모음체계변화의 原因에 對해서도 考察하여 왔다. 論展에 있어서 具體性을 欠한 感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大體的인 傾向과 앞으로의 濟州島方言 모음체계가 變해 나갈 方向은 提示된 바라고 생각된다.

#### 〈註〉

- 1) R. Jakobson : Selected Writings. The Hague, 1962. PP. 202~220  
金芳漢 : 構造方言學〈語學研究 第四卷 1號, 서울大學校語學研究所, 1968, P. 20)
- 2) 本稿에서 方言을 記述함에 있어서 分析의 便宜上 音韻單位로 다음과 같이 羅馬字를 使用하기로 한다.

子音： p=P·b    m=PP    ɸ=Ph    t=t·d    α=tt  
 ɛ=th    ɣ=K·g    ʀ=KK    ɳ=Kh    ɣ=C·Z  
 ɣ=CC    ɣ=Ch    ʌ=S    ɣ=SS    ɔ=m    ɳ=n  
 ɛ=r·l    ɔ=ʀ    ɣ=h  
 母音： | =i    ɳ =e    ɳ =e    ɳ =w    ɳ =ə    ɳ =a    ɳ =u  
 ɳ =o    ɳ =ɔ    ɳ =ja    ɳ =je    ɳ =je    ɳ =je  
 ɳ =jo    ɳ =ju    ɳ =jɔ    ɳ =wa    ɳ =we    ɳ =wə  
 ɳ =we    ɳ =wi    ɳ =wi

- 3) 拙稿：濟州島方言의 單母音設定〈韓國言語文學，2輯，韓國言語文學會，1964，PP. 43~52〉
- 4) 金完鎭：韓國語音韻史〈韓國文化史大系V，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1967，P. 115〉
- 5) 拙稿：濟州島方言 “ㅈ”音에 對하여〈濟州大學，國文學報 2輯，1964，PP. 3~34〉
- 6) 拙稿：濟州島方言 “ㅈ”音小攷〈梁柱東博士華誕紀念 論文集，東國大學校 1963，PP. 627~646〉
- 7) 李崇寧：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東方學志三輯，延世大學校，1956，P. 43〉  
 河野六郎：朝鮮方言學試攷—缺語考，1942，PP. 31~32  
 洪淳鐸 李敦柱：巨文島方言에 對하여〈湖南文化研究 3輯，全南大學校湖南文化研究所，1965，P. 52〉  
 李秉根：黃洞地域語의 音韻(서울大學校教養課程部 論文集 1輯 (人文·社會科學)，1969，P. 53)
- 8) K. L. Pike：Phonemics, Ann Arbor, 1959, P. 117)
- 9) A. Martinet：Function, Structure, and Sound Change  
 〈Word, 8, 1~32, 1952〉  
 金芳漢：構造方言學(語學研究 四卷 1號，서울大學校語學研究所，1968，P. 11)
- 10) 拙稿：濟州島方言 “ㅈ”音小攷〈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東國大學校，1963 PP. 627~646〉
- 11) 許 雄：國語音韻學 1965，P. 93